

18:00시부터 중앙선 영천역 양방향 열차 운행을 재개하였습니다 (2보)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10월 18일(수) 07:54분경 발생한 영천역 인근 화물열차 탈선사고와 관련하여 아화역~영천역 구간 하행선 복구를 완료하고, 18:00시부터 하행선을 통한 양방향 운행을 재개하였습니다.
 - 당초 복구 작업 가운데 기중기를 통해 열차를 들어 올리는 과정 등을 고려하여 10월 19일(목) 09:00시경 복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,
 - 사고 직후 철도재난상황반을 현장에 즉시 투입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기반으로 복구작업을 진행하는 신속한 조치로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복구*되었습니다.
- * 아화역~영천역 구간 상행선의 복구완료 및 운행재개는 10.26 예정(잠정)
- 국토교통부 박재순 철도안전정책관은 “최근 증가하는 철도안전사고에 대한 심층 조사를 통해 시설, 장비, 차량 등 철도안전 체계와 투자에 문제점이 없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”고 밝혔습니다.

※ (10.18 지연 현황) 일반열차 23대(상행선 12, 하행선 11) 18~66분 지연

담당 부서	철도국	책임자	과 장	조성균 (044-201-4600)
	철도안전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이채훈 (044-201-4603)